

CES 2018, SmartHome을 넘어 Smart City로!



전시 개요

전시명 : Consumer Electronics Show(소비자 가전 전시회)

전시기간 : 2018년 1월 9일 ~ 12일

전시장소 : Las Vegas Convention Center(Tech East) & Sands Expo(Tech West) & Aria(Tech South)

주최 : Consumer Electronics Association (www.ces.tech)

전시규모 : 약 4,000여 개사 / 약 18만 명 참가

CES 2018로 보는 ICT 동향

세계 최대의 가전 전시회인 CES 2018이 현지시각으로 지난 1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미국 네바다주의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됐다. 이번 전시의 주제는 스마트홈을 넘어 '스마트시티의 미래'로 초연결 사회로 진화하는 미래를 표현했으며, 주요 키워드로는 AI, IoT, 자율주행, 5G, 로봇, Voice 등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우리 생활과 가까워지는 전자제품들과 관련 기술이 선보였다. 올해에는 개최 전날부터 9일까지 비가 내리고, 10일에는 Central Hall 전시장의 전기가 나가는 등 이번이 속출하였지만 4일간 큰 사고 없이 무사히 진행되었으며, 전 세계의 다양한 제품과 부스로 크기와 내용 면에서 왜 CES인지 알 수 있는 참관이었다.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로는 부족하여 근처 호텔에서 동시 개최될 정도로 규모 면에서 월등했고, Tech East, Tech West, Tech South 3곳으로 나뉘어 컨퍼런스와 제품 전시가 진행되었다. 건물 주변을 가득 메운 각 회사의 전시 소식과 제품 소개 광고, 매일 150페이지가 넘는 데일리 등은 세계의 오늘을 느끼기에는 정보의 양이 엄청났다. 또한, 어디를 가더라도 가득한 사람들과 참관객들은 CES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과 LG 전자 등은 CES 시작 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사의 최신 기술을 소개했고, 인텔과 퀄컴, 포드, 바이두, 화웨이, 버라이즌 등 세계적 기업에서 키노트를 맡아 AI와 5G 등의 주제에 관해 참석자들과

소통했다. 전시장에서는 4K를 넘어 8K로 디스플레이는 향하고 있었고, HDR을 통해 더욱 생생한 영상을 구현하였으며, 인공지능 음성서비스로 단순한 TV를 벗어나 진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전기, 수소를 공급원으로 하는 자동차와 커넥티드, 자율주행이 올해에도 이슈였으며, 중국과 아시아 업체들의 로봇, 드론 관련 많은 제품을 전시했다. 특히 1800여 개의 중국 기업이 이번 CES에서 제품을 출품하여 '차이나 가전쇼'라 불릴 정도로 중국의 영향도 점차 높아졌다. 이 밖에도 생활 전반의 제품들은 전시 관람객의 눈을 즐겁게 했고, AR/VR 등 직접 체험을 통해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CES가 개최된 3곳의 위치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의 각 전시장

- 3D Printing, Accessories
- Augmented & Virtual Reality
-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 Computer Hardware/Software/Services
- Content Creation & Distribution
- Digital Imaging/Photography
- Digital/Online Media
- Drones, Electronic Gaming
- Fitness & Sports
- Health & Biotech
- Internet Services, Lifestyle
- Personal & Cyber Security
- Robotics, Sensors, Smart Home
- Startups, Vehicle Technology
- Video, Wearables
- Wireless Devices & Services

CES 2018 전시제품 분류

얼마 전부터 우리는 인공지능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런 영향으로 구글 어시스턴트나 아마존 알렉사를 탑재한 인공지능 스피커를 흔하게 볼 수 있게 되었고, 음성으로 이를 동작하여 보다 손쉽게 원하는 결과를 얻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클라우드 역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사물을 연결시키고,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 필요한 솔루션으로 꼽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AR/VR 같은 몰입형 경험을 할 수 있는 기술을 포함해 자율주행차 등 스마트카를 통해 효율성과 생활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요소에도 사람들은 열광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비트코인 열풍으로 인한 블록체인과 같이 보안으로부터 자유롭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과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있다. 이 외에 5G, 핀테크, 디지털 헬스케어 등 생활 전반을 바꿔놓을 수 있는 기술에 대한 모든 것이 CES에서 펼쳐졌다. 연결과 확장, 이동, 융합 등 첨단 기술을 통한 사회 변화의 움직임은 우리 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시작되고 있다. 그 결과가 긍정이든, 부정이든 CES에서 각 기업들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다.



컨벤션 센터의 Central Hall 외관



컨벤션 센터의 South Hall 외관



한국기업의 부스 위치를 나타내는 대형 시트광고



전시장 곳곳에서는 전시 업체의 제품 홍보와 브랜드 로고로 가득했다



CES의 메인 전시장과 주요 호텔까지는 무료셔틀버스를 통해 편의를 높였으며, 모노레일과 도보를 이용해서도 CES 현장을 방문할 수 있었다

Central Hall

CES의 메인 전시장인 Tech East의 Central Hall에서는 LG 전자와 파나소닉, 니콘, 보쉬, 삼성전자, 소니 등 종합 가전사와 함께 인텔, 퀄컴 등 칩셋 제조사, 화웨이, 하이센스, 하이얼, TCL 등 중국 회사의 부스가 위치했다.

◀ LG 전자

LG 전자는 부스 전면에 55인치 올레드 246장을 이어 붙여 길이 16m, 너비 16m, 높이 6m 규모의 초대형 올레드 협곡을 설치해 관람객들의 주목을 받았다. 작년 하우스 모양에서 올해는 이를 더욱 연장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했다. CES 2018에서 90개의 어워드를 수상할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은 LG 전자는 독자 개발한 화질칩인 알파9를 장착하고, 자연어 음성인식 기능을 탑재한 'LG AI 올레드 TV'를 선보였고, 나노셀(Nano Cell) 기술과 '풀어레이 로컬디밍(Full Array Local Dimming)' 기술을 더한 'LG 슈퍼 울트라HD TV'를 비롯해 구글 어시스턴트를 탑재한 'LG ThinQ 스피커', 나노IPS 패널을 적용한 21:9 모니터, 아마존의 알렉사를 탑재



Central Hall 전시장 부스 위치도

한 LG ThinQ 노코온 매직스페이스 냉장고, V30 등을 선보였다. LG ThinQ는 구글과 협력한 LG 전자의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를 아우르는 브랜드로 'LG ThinQ 존'에서 인공지능 제품들을 통해 일상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꾸몄고, 세탁기와 건조기, 스타일러, 냉장고, 에어컨 등이 서로 연동되는 스마트홈을 시연하여 소개했다.



55인치 올레드 246장으로 꾸민 올레드 협곡. Central Hall의 중앙 복도에서는 LG와 삼성, 파나소닉, 소니로 바로 이어지는 문이 존재했다



LG ThinQ 기반의 여러 가전제품을 연동하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각 방으로 꾸며, 관람객이 ThinQ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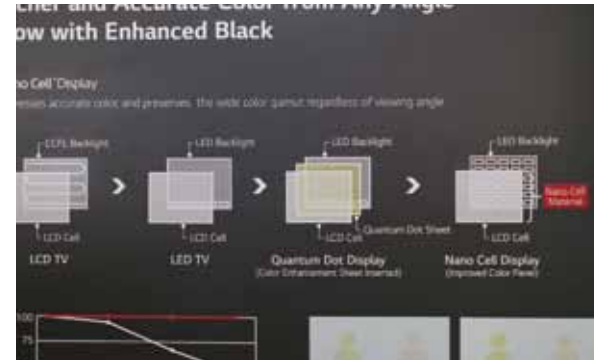
자연어 처리와 구글 어시스턴트가 탑재된 LG AI 올레드 TV



LG 전자가 독자 개발한 화질칩, 알파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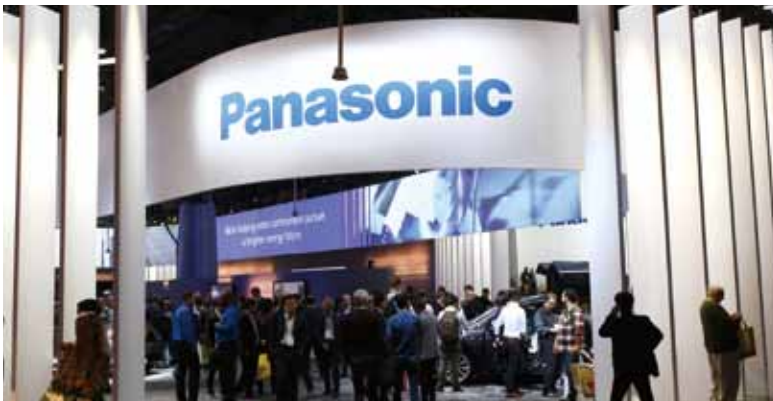
나노셀(Nano Cell) 기술을 표현한 구조물과 관련 설명



600nit의 밝기로 HDR과 씬더블트 3로 데이지 체인을 지원하는 UHD Nano IPS 모니터



LG 전자의 로봇 브랜드 클로이는 안내와 청소, 서빙 등 ThinQ와 연동되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파나소닉 부스 전경



故 마쓰시타 고노스케 옹의 일대기와 지난 파나소닉의 제품을 전시

Panasonic

‘파나소닉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파나소닉은 두 관으로 나누어 파나소닉의 과거와 미래를 살펴볼 수 있도록 전시했다. 창업주인 故 마쓰시타 고노스케 옹의 일대기를 영상화하여 파나소닉의 시작과 발자취를 공유했고, 파나소닉의 역사와 철학을 바탕으로 미래 비전의 물입형 엔터테인먼트, 커넥티드 월드, 지속가능 에너지, 통합 공급체인 등 4개 구역의 전시를 통해 파나소닉만의 기술과 가치를 선보였다. 사용한 에너지보다 더한 가치를 창출해내는 Vision 2050을 발표했고, 스마트비전 콕핏과 자율주행으로 운전석과 뒷 자석이 마주 보는 형태의 프로토타입, 테슬라의 전기자동차에 사용되는 배터리, AI 기반의 로봇 등 파나소닉의 신기술로 가득한 전시였다.



파나소닉의 스마트 디자인 운전석 콘셉트



자율주행으로 서로 마주볼 수 있는 시트



테슬라의 전기자동차에 사용되는 파나소닉 제조의 배터리팩



투명 디스플레이를 통한 입체 정보 안내



RFID를 사용하는 IoT 솔루션, 통합 공급체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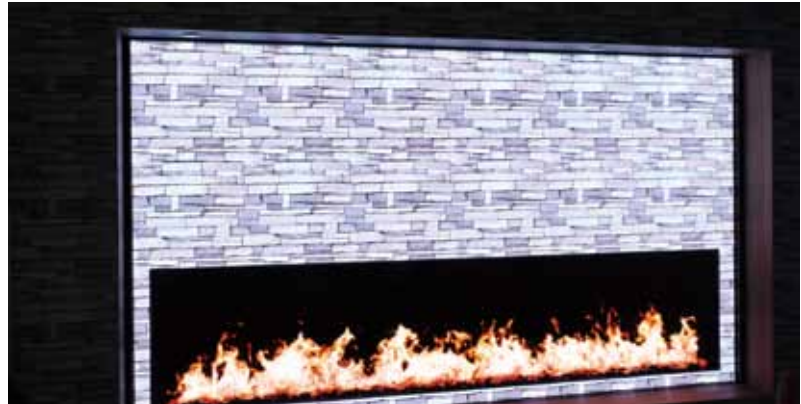
▶ 삼성전자

삼성전자 부스에서는 세계 최초로 마이크로 LED 기술을 적용한 146인치 모듈러 TV인 '더 월(The Wall)'에 가장 많은 관람객이 몰렸다. 이 TV는 마이크로 LED 기술을 적용하여 백라이트와 컬러필터를 없애 LED 자체를 광원으로 사용하는 자발광 TV이다. TV 주변의 벽모양과 같은 이미지를 띄워 사실에 가까운 영상 구현을 시연했고, 테두리가 없는 베젤리스 디자인으로 집을 비롯해 다양한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 맞은편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여 저해상도의 화질을 8K 화질로 바꿔주는 85인치 8K QLED TV가 전시되어 디테일과 노이즈, 옛지 부분을 개선하여 SD~4K의 화질을 8K 화질로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줬다. 삼성전자는 이 밖에 삼성



삼성 변화와 컨셉을 설명하는 부스 전경

의 인공지능 플랫폼 빅스비와 IoT 플랫폼 스마트싱스와 연동되는 2018년형 스마트 TV를 선보였고, 스마트홈 공간에서 인공지능으로 구현되는 제품 연동을 체험해볼 수 있도록 부스를 꾸몄다. 하만과 공동 개발한 디지털 콕핏도 선보여 관람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도 했다. Central Hall 복도에는 갤럭시 시리즈와 기어 VR을 체험할 수 있는 별도 부스를 마련했다.



146인치 모듈러 TV인 '더 월(The Wall)'



AI를 이용해 8K 화질로 변환하는 기술을 설명



삼성의 SmartThings로 연결되는 스마트가전



서로 연동되어 동작하는 제품들을 실제 집처럼 꾸며 체험 가능하게 했다



삼성과 하만이 협력한 스마트 운전석 콘셉트



삼성의 AI 플랫폼인 Bixby 체험존

SONY

Central Hall의 안쪽에 자리한 소니는 자사의 최신 컨슈머 제품들을 보기 쉽게 정리해 놓았다. 아마존 알렉사를 채용한 소니의 TV와 구글 어시스턴트를 채택한 스마트 스피커, 자동차용 이미지 센서, AI와 로보틱스 기술의 엔터테인먼트 로봇 아이보 등 다채로운 기술들을 탑재한 제품들을 전시했다. 특히 소니의 차세대 이미지 프로세서인 X1 얼티메이트 프로세서를 탑재한 8K 디스플레이는 10,000nits의 화면 밝기로 사실감이 뛰어난 HDR 영상미를 재현했다. 4K OLED 브라비아 A8F 시리즈는 X1 익스트림 프로세서를 탑재하였고, 화면 진동을 통해 소리를 표현하는 어쿠스틱 서페이스 기술을 탑재하여 몰입감을 높였다. 또한, 소니의 라이프 스페이스 UX 시리즈인 4K 초단초점 프로젝터 LSPX-A1은 인조대리석으로 제작되었고, 벽에 가까이 설치되어 최대 120인치의 4K HDR 영상을 구현하며, 생생한 음향을 재현해 낸다.



컨퍼런스 및 전시 안내를 제공했던 대형 LED



Central Hall 안쪽에 위치한 소니 부스 전경



X1 얼티메이트 프로세서를 탑재한 8K 디스플레이



X1 익스트림 프로세서를 탑재한 소니의 브라비아 OLED TV



어쿠스틱 서페이스 기술 시연



소니의 AI와 로보틱스 기술의 집합체인 로봇 아이보



4K 초단초점 프로젝터 LSPX-A1



Intel

지난 1월 초 CPU 보안 업데이트 이슈로 전 세계에 충격을 줬던 인텔은 이와는 상관없이 CES 전시장에서 그간의 개발 결과를 공개했다. 5G 자율주행차량을 비롯해 5G를 이용한 4K UHD 스트리밍 시연과 VR Social & Gaming 등 전시관을 AI, AD, VR 등으로 나누었고, 중간중간 세미나를 통해 관람객들과 전시내용을 공유했다.



AI, AD, VR 등 인텔의 최신 기술이 선보였다



5G를 이용한 4K UHD 스트리밍 시연



Qualcomm

퀄컴은 IoT 솔루션, Automotive, Connect, Immerse를 주요 테마로 구성했다. 스냅드래곤 x16 LTE 칩을 탑재한 차량을 전시하며, 차량 내에서 기가비트의 LTE 속도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다고 하였고, 무선 전기자동차 충전장치인 Qualcomm halo 솔루션을 통해 플러그인을 하지 않고 그 위를 지나가기만 해도 충전이 가능했다. 이밖에 Wi-Fi Mesh Networking을 통해 집에서 상관계기 간의 연결성을 강화했다.



스냅드래곤 x16 LTE를 탑재한 차량 전시



전기차에 무선 충전을 제공하는 halo 솔루션

Hisense는 쿼텀닷 방식의 4K와 8K TV를 내놓았다. 안드로이드 TV, 아마존 알렉사 등의 기능을 탑재하였으며, 4K 레이저 TV라는 프로젝터를 88, 100인치 등으로 나누어 전시했다. 특이하게 ULED라는 용어로 TV를 소개했는데 U는 Ultra Slim의 약자였다. **HUAWEI**는 Kirin 970 AI 프로세서를 탑재한 Mate10 Pro를 전시했다. 6인치로 HDR을 지원하며, f/1.6의 Aperture를 지원한다. **TCL**은 돌비비전을 지원하고 하만카돈 스피커를 탑재한 4K HDR QLED TV를 대거 전시했다. **Haier**는 부스 전체적으로 스마트홈을 강조하며 IoT Cloud chip으로 연결되는 부엌과 화장실 등의 공간을 선보였다.



Hisense의 8K QLED TV



Hisense의 4K 레이저 프로젝터



Mate10 Pro를 메인으로 전시한 HUAWEI 부스



HUAWEI의 VR 솔루션과 체험존



TCL은 부스 전면을 자사의 TV로 가득채웠다



로컬 디밍과 QLED 기술의 TCL 4K TV



스마트홈을 강조한 Haier 부스



CHANGHONG은 HDR과 안드로이드 기반의 AI 컨트롤이 가능한 4K OLED TV를 선보였다



Skyworth는 안드로이드 TV와 OLED 월페이퍼 위주로 전시했다



DENON은 세계 최초로 13.2채널을 지원하는 리시버인 AVR-X8500H를 전시했다.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며 192kHz/32bit의 D/A 컨버팅이 가능하고 아마존 알렉사도 지원한다고 한다.



DENON의 최신 리시버인 AVR-X8500H



13.2채널과 고음질을 지원하는 AVR-X8500H



Canon 부스



EOS C200 시네마 카메라

Canon은 EOS C200 시네마 카메라를 비롯해 5D Mark IV 등 자사의 컨슈머, 프로용 카메라를 비롯해 인공지능을 탑재한 컴팩트 카메라 콘셉트를 전시했다. CCTV와 같은 형태로 스마트 기기와 연동되며, 주변 환경을 파악해 최적의 촬영과 편집을 진행한다.

Central Hall 건너편의 Central Plaza에서도 구글을 비롯한 여러 업체가 부스를 꾸렸다. **Gibson** 브랜드는 콘서트장과 같은 전시장을 꾸며 놓고, 자사의 제품을 편히 살펴볼 수 있도록 꾸몄고, **Google**은 구글 어시스턴트를 비롯한 구글 서비스를 직접 체험해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주로 체험존으로 꾸린 구글 부스는 'Hey, Google'과 같이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였고, 구글 어시스턴트를 탑재한 전자기기도 한 번에 볼 수 있었다. 더 나아가 미니어처로 제작된 구글 시티까지 살펴볼 수 있었다. CES 2018 전시장 이곳저곳에서, 그리고 라스베이거스의 여기저기에서 구글의 로고와 구글 어시스턴트를 홍보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는데, 이는 아마존 알렉사 역시 마찬가지다. 전자제품이 결국은 AI로 연결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이 두 업체로 귀결되는 듯했다. 향후 5년 후에는 어떠한 성능과 서비스로 진화할지 무척이나 궁금했다.



Central Hall 앞쪽의 구글 체험 부스



Central Plaza에 위치한 구글 부스



구글 어시스턴트를 채택한 제품 전시



미니어처로 제작된 구글 시티

Central Plaza의 한쪽에서는 자동차 소리가 크게 나는 곳으로 가보니, 자율주행 솔루션 업체 애플티브와 차량 공유업체 리프트가 라이다와 카메라 등 각종 센서를 장착한 BMW 5 시리즈를 기반으로 헤일링(차량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면을 볼 수도 있었다.



자율주행 차량을 체험해 볼 수 있었던 애플티브 부스



자유로운 분위기의 Gibson 부스

North Hall

North Hall에서는 자율주행 및 커넥티드카, 친환경차를 비롯한 완성차와 관련 기업들의 전시가 주를 이루었고, 현대와 기아, 혼다, 토요타, 벤츠, 포드, 닛산 등을 비롯해 엔비디아 등의 최신 솔루션이 선보였다. 곧 현실로 다가올 미래의 자동차를 향한 관람객들의 높은 관심으로 자동차는 이제 CES의 주요 전시로 자리를 잡은 듯 보였다.

현대자동차는 수소전기차인 넥쏘(NEXO)의 콘셉트형을 전시했다. 5분으로 완전 충전이 가능하며, 최대 59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다. 넥쏘는 현재 레벨 2의 자율주행 기능을 만족하지만 2021년까지 자율주행 솔루션 기업인 오로라와 협력을 통해 레벨 4의 자율주행 기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아자동차는 '경계 없는 모빌리티의 혜택'을 미래 모빌리티 비전으로 발표했으며 '니로' 전기차를 콘셉트로 내놓았다. 한 번 충전으로 380km 주행이 가능하고, 아마존과의 기술 협력으로 운전자 안전 인식 기술, 능동 보행자 경고 시스템, 스마트 터치 에어벤트 등의 최첨단 신기술을 탑재했다.

도요타는 미래 모빌리티 플랫폼인 'e-팔레트 콘셉트'를 전시했다. 자율주행 전기차인 e-팔레트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어 그 활용도가 무궁무진하다. 도요타는 아마존, 우버, 피자헛 등과 얼라이언스를 통해 모빌리티 서비스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자동차의 수소전기차, '넥쏘(NEXO)' 콘셉형



기아의 '니로' 전기차 콘셉트



도요타의 미래 모빌리티 플랫폼인 'e-팔레트 콘셉트'



도요타의 자율주행차 내부

닛산도 자율주행 전기차 콘셉트인 'IMx'를 공개했다. 주행 모드와 수동 모드로 나눠 운전이 가능하며, 1회 충전으로 600km를 주행할 수 있다.

다임러벤츠는 스마트 비전 포투 EQ 콘셉트 자율주행 콘셉트 카를 공개했다. 카셰어링에 최적화되어 스티어링휠과 페달이 없다.

포드는 도미노와 협력하여 자율주행 배달 서비스를 선보였다.

혼다는 사람과 공감하는 커뮤니케이션 로봇 콘셉트 모델을 공개했다. 'Empower, Experience, Empathy'의 3E를 주제로 로봇이 사람과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구현하고자 했다.



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



닛산의 전기차 콘셉트 'IMx'



혼다의 커뮤니케이션 로봇 콘셉트



벤츠의 스마트 비전 포투 EQ 콘셉트



벤츠의 스마트 운전석 콘셉트



포드의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피자 배달 서비스



South Hall

South Hall에서는 게임과 VR/AR, 홈시네마, AI, 드론, 로봇릭스, 무선 제품 등 실생활과 근접한 최신 전자제품들이 선보였다. 중국과 일본 회사의 제품들이 대거 전시되었으며, 게임과 드론, 로봇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었다. 워낙 방대한 크기라 살짝 둘러보는 것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정도였으며, 흥미로운 제품들도 많아 보는 재미가 있었다.



South Hall 1 전시장 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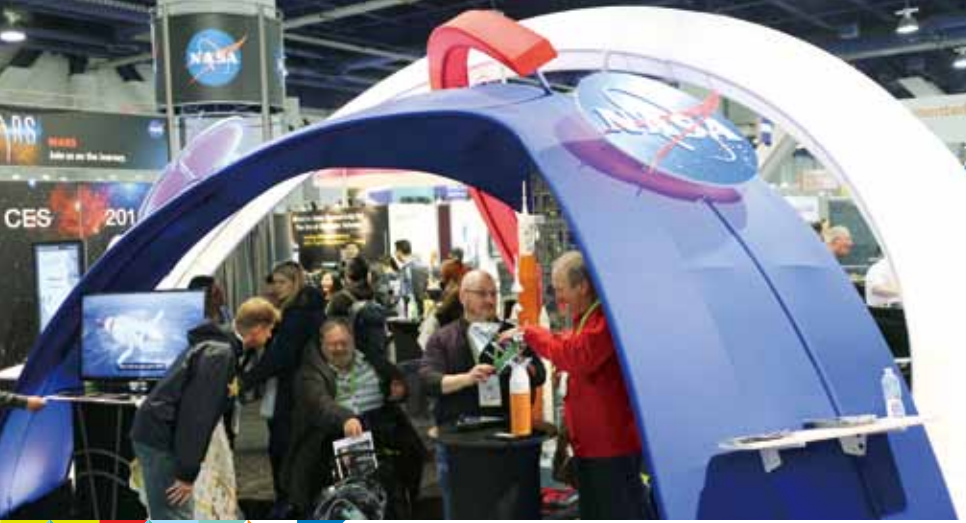
Insta360 Pro는 손쉽게 8K VR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KODAK의 360 4K VR 카메라 역시 양증맞은 크기로 360 영상을 촬영할 수 있었다. 전시장을 둘러보니 HDMI, NASA, Display Port 등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기업과 제품이 가득했다. 다양한 크기와 용도의 드론 시연장이 곳곳에 있어 드론의 열기가 아직 식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고, 특히 로봇 제품들이 눈에 띄었다.



Insta360 부스



KODAK 부스



NASA 부스



Display Port 부스



특이한 형태의 드론 시연 장면



전시장 곳곳에 있었던 드론 시연장



중국 바이두 부스의 DUER OS 설명과 탑재 제품 전시



중국 회사인 UBTech가 디즈니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아 만든 ‘스타워즈 퍼스트오더 스톱트루퍼 로봇’은 양증맞은 크기로 스타워즈의 일반 병사의 외형을 갖추고, 걷기와 주인의 목소리에 반응하는 등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었다. 현재 아마존에서 판매에 들어갔다고 한다. 이 밖에도 많은 종류의 로봇이 선보여 얼마 안 있으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첨단 로봇을 CES에서 구매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다. 퓨리온이라는 업체에서는 프로시시라는 이름의 탑승형 거대 로봇을 전시했다. 외골격 형태로 사람이 탑승하여 조종하는 방식이며 높이 4.5m, 너비 5m, 무게는 3.6t에 이를 정도로 거대한 크기를 자랑한다. 전기모터와 배터리로 한번 충전에 1시간가량 동작할 수 있으며, 경주용으로 선보였다.



중국 회사 UBTech의 양증맞은 스타워즈 로봇 전시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로봇이 전시되었다



산업용 로봇 전시



퓨리온의 경주용 거대 로봇



Bonanza의 도시

라스베이거스를 돌아다니다 보면 Bonanza라는 간판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금, 은 등의 광맥을 일컫거나 이를 찾는 사람을 뜻하는 말로 라스베이거스에 적합한 단어가 아닌가 한다. 카지노로 가득한 이 도시에 왜 CES가 개최되는 것일까 하니 18만 명에 달하는 전시 참석자를 수용할 수 있는 도시는 라스베이거스가 유일하다고 한다. 밤이 될수록 찬란한 조명과 열기가 더해진다는 라스베이거스. 이곳에서 느낀 CES 2018은 왜 세계적 기업들이 엄청난 돈을 쓰면서까지 전시에 몰두하는지 알 것도 같았다. AI와 머신러닝, 빅데이터, 클라우드, 자율주행, AR/VR 등이 더욱 발전한 미래사회는 스마트홈을 벗어나 하나의 스마트 시티를 단위로 하여 늘어날 것으로 보였다.



현지시각 10일 오후, Central Hall의 정전 당시 삼성 부스



CES의 방송 부스



라스베이가스 도심에서 볼 수 있었던 구글 광고



스타트업의 제품을 전시한 전시장

방대한 CES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사전 계획과 전시 부스의 위치 확인이 필수이다. 또한, 키노트는 한국어도 지원한다고 하니, 너무나 넓어서 못 다닌 장소가 더 많은 CES였지만 내년 방문할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